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성전과 성벽 완공'에 대한 상관관계 고찰*

김영호(한신대)

1. 서론

에스라-느헤미야서는 바빌론 포로민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再建)을 중심으로 서술한다.¹ 에스라서(Ezra)는 포로시대 이후를 배경으로 파괴된 예루살렘의 재건을 서술하고, 느헤미야서(Nehemiah)는 유사한 주제인 예루살렘 성벽 복구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또한,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주제뿐 아니라 형식과 언어와 문체의 유사성도 지니고 있으며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귀향자 명단이 거의 동일하고, 등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포로기 사제집단의 이데올로기 형성과 종교권력 구축 과정 연구"(A Study of Religious Power Image in the Hebrew Bible through a Consideration of the Formation of Ideology of the Priesthood in the Exile, 한신대학교 대학원, 2023)을 발췌하고 수정 및 요약하였다.

1 참조. 에스라-느헤미야서는 70인 번역본에도 한 권의 책으로 번역되었고, 기원전 2세기 사르디스 멜리토(Melitto of Sardis)가 작성한 목록에도 한 권으로 나온다. 이것이 둘로 분리된 것은 2세기경이며, 오리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역본에서 두 권의 책으로 읽히고 있다.

장하는 사건과 인물들이 서로 보완되는 점에서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일정한 의도에 따라 동일한 편집자의 손길을 거쳤다고 추정한다.²

본 연구는 ‘이데올로기 해체 비평’이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성서의 역사를 당시의 시대적 정황(history contexts)을 고려하여 저자의 일정한 편집 의도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데올로기’는 그 개념이 권력 지향을 나타내는 사회적 의미가 아닌 칸트 개념으로 표상이 직관을 통해 현상되는 개념의 집합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제2성전과 성벽의 완공’을 통해 드러내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동안 성서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미진했던 ‘성벽 완공’의 의미가 외형적으로 단순한 군사 목적을 가진 hm'Ax(호마/성벽)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한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서 ‘성벽의 완공’ 부분(느 8-10장)이 후대 편집된 이유를 찾고,³ 이데올로기 편집으로 ‘율법’, ‘초막절’, ‘성전세’, ‘레위 제사장’과의 상호 연관성을 밝힌다.

2. 연구사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대한 연구는 ‘역대기 역사서’에 속한 것이 아닌 독립된 역사적 사료로써 의미가 있다는 연구를 새로운 기점으로 한다.⁴ 전통적으로 에스라-느헤미야서가 역대기와 연결된 단일 역사서

2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한 권인가, 두 권인가?”, 「장신논단」 19 (2003), 447-461.

3 배희숙,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집’ 재건: 느헤미야서 통째로 읽기”, 「선교와 신학」 47 (2019), 220.

4 민경진, “최근 에스라-느헤미야 연구 동향”, 「성서마당」 11 (2006), 54

(한 책)라는 인식과 야벳(S. Japhet)과 휴 윌리엄스(H.G.M. Williamson)가 단일 저자설에 의문을 가지고 독립된 작품설로 주장하면서 에스라-느헤미야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제2성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주목을 받게 되었다.⁵ 그렇지만 이 분야 연구는 여전히 인물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는 느낌이며,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상호적인 관계로 나타난 성전과 성벽이 지닌 신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⁶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대한 연구에서 만프레드 외밍(Manfred Oeming)은 성벽 완공에 대한 4가지의 틀(model)을 제시한다. 첫째, 사마리아 견제. 둘째, 성벽의 정치적 기능. 셋째, 경제적 이유. 넷째, 신학적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는 그 가운데 네 번째 모델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으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상징을 가졌다고 해석했다.⁷ 외밍에 영향을 받은 우상혁은 이것을 ‘성벽 신학’이라고 명칭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의 의미가 신명기와 레위기 그리고 선지서, 시편의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성벽 재건축이 유다 백성의 회복 사상으로 선지서의 입김이 강하였다고

5 James D. Newsome,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the Chronicler and His Purpos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4 (1975), 201-17;

6 L. S. Fried, "Something there is that doesn't love a wall around Jerusalem - Why would a simple city wall create such a crisis?," *Transeuphratène* 39 (2010), 79-89. 에스라 4장 및 느헤미야 2:10을 근거로 유다 주변 민족이 어찌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했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지만, 성벽의 신학적 의미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Lester L. Grabbe, "Looking for Models for Nehemiah's Polity," in I. Kalimi eds., *New Perspectives on Ezra-Nehemiah*,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28-29. 그라비는 느헤미야 이야기에서 대략 연대기 순으로 있었던 주요 사건을 10개나 제시하며 성벽과 관련된 것은 소개하지만 정작 성벽은 언급하지 않는다.

7 M. Oeming, "The Real History: The Theological Ideas behind Nehemiah's Wall," in I. Kalimi *New Perspectives on Ezra-Nehemiah*, eds.,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12), 142-143.

주장한다.⁸ 그러나 이런 관계는 저자의 의도보다는 독자의 해석이며, 우상혁 자신도 그 정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⁹

배희숙은 느헤미야 8-10장을 통해 페르시아 유다(예후드)의 ‘하나님의 집’ 재건은 사회 개혁의 일환이며 성벽 재건 자체의 의미보다는 당시 사회의 문제였던 고리대금 문제(느 5:1-13)와 도비아의 성전 거주(느 13:3-14) 및 안식일(13:15-22)과 이방인 이혼 문제 등 사회 종교적 문제 해결 과정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성벽의 완공은 사회적 관점의 개혁 성취에 대한 의미로써 연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의 집’이란 포괄적 개념 속에 성벽 건설이 포함되고, 외형적인 것을 넘어 율법,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질서, 성전 제의의 운영 및 성전관리들의 생계 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형의 제도를 ‘하나님의 집’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이 접근 역시 저자의 의도가 아닌 독자의 해석적 관점이라는 점에서 ‘성벽 완공’에 대한 저자/편집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이데올로기 해체 비평’을 통한 두 서술의 의미

본 연구는 ‘이데올로기 해체 비평’을 통해 성서 저자 서술의 이면(裏面) 의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데올로기 해체를 위한 기준은 성서의 글쓰기와 해석의 도식이 아닌 성서 글쓰기의 의식, 곧 이데올

8 우상혁,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성벽 신학” 『개혁논총』 40 (2016), 33-62.

9 윗글, 58

10 배희숙,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집’ 재건: 느헤미야서 통째로 읽기”, 『선교와 신학』 47 (2019), 217-245.

로기 형성과 그 이데올로기의 해체(deconstruction)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해체에 필요한 것은 그 시대의 역사적 정황(contexts)을 기준으로 당시의 인구, 노동생산력 등 경제적 상황 또한 거시적 시각에 기반을 가지고 봐야 한다. 해체는 기존의 성서 연구와 해석에 대한 액상화(melting) 과정을 통해 성서의 글쓰기의 의도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성서 해석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접근의 유용성은 글쓰기는 저자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본문에 드러나지 않은 저자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대적 흐름을 선행적으로 인식해야 한다.¹¹

1) 성전과 성벽 완공의 페르시아 제국 상황(기원전 515-430년)

(1) 강대국 간 평화의 시대로 전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완공 전후의 역사적 정황으로, 당시 예루살렘 속주(屬州)에 대한 중앙정부 페르시아 제국의 기원전 515-430년 시대적 흐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르시아는 고레스 2세(Cyrus the

11 참조. 1970년대 한국의 유신체제가 자신들의 독재에 대한 정당함과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1968년 12월 5일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이 좋은 예이다. 이 헌장은 그 당시 교과서에 첫 장에 등장하여 학생들에게 암기하도록 했다. ‘국민교육헌장’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민족주체성 확립’이라는 웅장한 서사적 글이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면 이 저자는 ‘군부 독재자’였기에 그 내용에 담긴 함의(含意)는 군부 권력의 유지 의도를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이라는 문구는 그 문장 표면의 해석이나 각 단어의 해석에 있어 어떤 난해함이 없다. 그러나 군부 독재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면 ‘분명 나라(국가)가 개인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이다. ‘국가=정부=유신헌법= 군부 독재’ 등식으로 군부 독재가 국가이며 개인의 권리보다 군부 독재가 우선한다는 함의가 있는 것이며 그들이 제정한 유신헌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기에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며 군부 독재(국가)의 명령(유신헌법)에 순종(백성)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함축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군부 독재의 배경(역사적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문장의 형태만 가지고 단순히 이 문장의 뜻만 논의한다면, 우리가 해석한 내용과 저자의 진의(眞意)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Great, 재위 기원전 539-530년)가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을 정복한 이후에도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서쪽으로는 아나톨리아 소아시아를 넘어 그리스까지, 남쪽으로는 레반트 지역을 통과하여 이집트까지 세력을 확장하려 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빌론 제국의 농업생산을 기초로 한 제국 운영과 다르게 교역을 중시했다. 해상(海上)으로 에게해(海)와 멀리는 지중해 무역까지 확대하려고 했다. 이것은 에게해 중심의 해상 세력인 아테네와의 충돌이 불가피했다. 제국의 초기 모습은 불안정했다. 제국을 세운 고레스도 카스피해 동쪽 중앙아시아 유목민과 벌어진 자카르테스(Jaxartes) 전투 중 사망했다(기원전 530년). 그의 아들 캄비세스(Cambyses, 재위 기원전 529-522년)도 이집트를 정복(기원전 525년)후 귀환 중 이집트 시와(Siwa)에서 사망했으며,¹² 다리우스 1세(Darius I, 재위 기원전 522-486년)때 내부 반란이 진압되면서 드디어 제국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¹³ 제국이 안정화되자 다리우스는 제국의 서쪽 방향 에게해와 지중해 지역으로 세력 확대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리스 반도에는 도시국가들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양분하여 대립을 하였다. 스파르타 중심의 ‘펠레폰네소스 동맹’(기원전 536년)과 아테네 중심 ‘델로스 동맹’(기원전 477년)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스파르타는 육군 중심으로 아테네는 해군 중심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이 아나톨리아 서쪽 해안 지역과 근방의 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아테네와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 다리우스

12 참조. 기원전 525년 이집트를 점령하고 직접 통치하다 기원전 404년 아티자스타 전투에서 패하여 이집트 통치가 종식된다.

13 참조. 다리우스가 반란 진압(기원전 522-521년)에 대한 비문과 부조는 현 이란 케르만 사 주의 베히스툰 산에 있는 비문(碑文)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리우스 1세(Darius I)가 기원전 522-521년에 벌어진 전투 승리의 공적을 엘람어, 페르시아어, 바빌론어(아카드 후기 문자)의 세 가지 설형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스 1세 때 아테네를 직접 공격(1차 페르시아전쟁)을 했으나 마라톤 전투(기원전 490년)에서 패배하여 퇴각했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르(Xerxes, 재위 기원전 519-465년)가 다시 대규모 군사(정규 육군 20만, 해군 800척)를 동원하여 아테네까지 점령하였으나(2차 페르시아전쟁),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해군이 아테네 해군에게 패전(기원전 480년)하면서 다시 퇴각하였다. 뒤를 이은 아하수에르 셋째 아들 아닥사스다 1세(Artaxerxes I, 재위 기원전 465-423년)시절도 내부 상황은 좋지 않아 박트리아 지역 반란(기원전 463년)과 이집트 점령지 반란이 있었다. 이 시절 페르시아 메가비조스(Megabyzos) 장군이 이집트 반란군을 제압(기원전 456/5년)하지만, 그 자신도 제국에 반란하면서(기원전 449-447년) 제국이 혼란했다.¹⁴ 그러나 마침내 반란은 진압되었고 아테네 페리클레스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는 ‘아테네-페르시아 강화조약’(칼리아스 강화, 기원전 489년)¹⁵을 체결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은 아테네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이집트 통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고 이집트와 아나톨리아 중간 지대인 예루살렘을 포함한 레반트 지역의 긴장 역시 사라졌다.

이 시점에 아닥사스다 1세가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를 파견하여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기원전 445년)를 하였다. 느헤미야가 파견된 시점은 아테네와의 평화의 시대였다. 아테네 역시 페리클레스 황금시대’(Pericles’s Golden Age, 기원전 460-430년)로 이 기간에 파르테논 신전 건축(기원전 447-432년)을 주목해야 한다.¹⁶

14 A. T. Olmstead,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332.

15 페르시아와 아테네 사이의 페르시아 전쟁 종결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그 내용은 페르시아에 이집트와 키프로스, 에게해에서의 항해 인정, 아테네의 소아시아 남쪽, 서쪽 해안 지역과 섬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조약.

16 참조. 신전은 신전 제의뿐 아니라 국가의 재무, 금고를 담당하였으며 델로스동맹(기원전

(2) 예루살렘 도성과 성벽은 불탔는가?

느헤미야 1장 4절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보도한다. 앞서 살핀 당시 역사적 상황을 따른다면, 이 보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성서의 이 표현의 역사적 진위성 여부와 별도로, 먼저 이 표현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표현이 과연 페르시아 제국의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이 허문 성을 재건하는 이유로 대부분 방어 목적을 든다. 민경진은 기원전 5세기 예루살렘 성벽 재건 목적이 그리스 세력에 대한 레반트 지역 방어 목적으로 이해했고,¹⁷ 라이너 캐슬러(Rainer Kessler)는 메가비조스 반란의 영향으로 예루살렘 성벽 건설이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⁸ 소형근도 성벽 건설이 메가비조스의 반란으로 인하여 성벽이 건설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제국의 속주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하여 이집트 접경지역인 유다 지방에 페르시아 관리였던 느헤미야를 파송하여 성벽을 건설하였다는 유사한 주장이다.¹⁹ 그러나 이들이 말한 성벽의 붕괴가 시기적으로 페르시아 시절, 군사적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은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묘사가 없으며, 예루살렘 성벽 완공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나 역사적 증거가 없다.²⁰ 오히려,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기원전 13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 후반 알렉산더의 이집트 정복까지 군사적 요충지로서 기능을 담당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

447년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오니아, 아이올리스, 에게해 여러 섬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아테네에 일정한 동맹군 자금을 지원)의 금고 역할을 했다.

17 민경진,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유대 역사 재구성: 기원전 458년에서 430년까지 에스라-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7 (2008), 131.

18 라이너 캐슬러/민경구 옮김, 『고대이스라엘 사회사』 (서울:CLC, 2022), 251.

19 소형근, “에스라-느헤미야서연구의 난제들과 그 해법들”, 『구약논단』 74 (2019), 356.

20 J. 맥스웰 밀러, 존 H. 헤이스/박문재 옮김 『고대 이스라엘 역사』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588.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생산성을 지니지 못했고, 생산품도 매력적이지 않기에 이 지역을 둘러싸고 제국 간의 대규모 전투가 일어난 바가 없다.²¹

또한, 중요한 근거로써 성서의 저자/편집 주체인 '사제집단'이 군사적 기록을 장황하게 기록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의문이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다는 보도는 이 성벽이 예루살렘 도시를 에워싼 성벽일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한다(느 6:15). 존 브라이트(John Bright)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구절을 근거로, 아닥사스다 시절 예루살렘 백성이 과도한 세금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성벽을 건설했다고 한다(스 4:12-16). 그리고 이 반란에 대해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다에 이 반란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과도한 세금의 근거가 미약하고 동일한 조건의 세금을 내는 사마리아인이 고발했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²² 하지만 성서의 보도는 아닥사스다 시절 성전 완공 후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과도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주변 세력인 유대인 귀족과 민장(officials, 공직자)들이 ‘고리대금업’을 하여 백성 일부가 노예가 되었으며(느 5:7-8) 이 문제를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느헤미아가 해결을 하였다는 것이다(느 5:1-18).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이 성벽 건설을 방해한 원인이 페르시아 제국의 과도한 세금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표현은 당시의 예루살렘 귀환 사제의 이데올로기적 인식으로 바라본 예루살렘을 나타낸다. 즉, 다윗왕조의 폐망과 함께 성전이 사라

21 참조. 람세스 시절 헷타이트의 카테시 전투의 경우 시리아 카테시 오론텐스(기원전 1274년), 느브갓네살의 갈그리스 전투(The Battle of Carchemish)는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점(기원 605년)이며 애굽왕 느고의 갈그리스 전투 전에 요시아와의 전투가 므깃도 전투(대하 35:20-27, 기원전 609년)이다.

22 존 브라이트/박문재 옮김, 『이스라엘 역사』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3), 519.

졌음을 표현하는 환유적 표현(metonymic approach)으로 “예루살렘 불탔다”를 서술하는 것이다. 귀환 사제집단의 시급한 목적은 성전의 건설과 예루살렘 재건(rebuilding)이기에 이들이 표현한 “예루살렘 성(城)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느 1:3)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곧 바빌론에 의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다. 끌려간 포로기 사제집단이 바라본 예루살렘 폐망의 모습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다”(렘 33:10),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성벽이 헐었다”(렘 39:8)라고 기록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들은 성전까지도 사라졌음을 강조하는 문학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무너지면서 귀환한 사제집단이 서술한 ‘예루살렘 파괴’ 언급은 페르시아 제국 시절의 어떤 반란 혹은 어떤 군사적 충돌, 예루살렘 내부의 폭동에 의하여 예루살렘 도시와 성벽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제집단이 표현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페르시아 제국 속주 정책의 일환인 중앙정부 세금 징수에 대한 관련성을 가지고 봐야 한다. 그들이 서술한 ‘성벽 재건’은 환유적 표현이며 이것은 그들이 말한 ‘성막의 최종 울타리인 장막’ 완성의 의미로 성전의 내외부의 모든 것이 갖추어짐을 나타내기에 52일간의 짧은 건설을 나타내는 것이다.²³

2) 성전의 완공과 성벽의 완공 관련성

(1) 성전, 성벽의 완공 목적

성전과 성벽의 완공 서술이 나타난 시기는 역사적으로 정확치 않게 기록되어 있다. 에스라-느헤미야서가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정확치 않게 기록하고 서술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서술하고자 하는 의

23 김영호, “포로기 사제집단의 이데올로기 형성과 종교권력 구축 과정 연구”, 105.

도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관심이나 역사적 사건의 시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2성전 완공 시기에 대한 기록의 허술함이 대표적이다. 성서의 보도에 따르면, 고레스 원년(기원전 539)에 세스바살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성전 재건 사업을 위임받았으며(스 5:13-15) 기원전 520년 다리우스 1세(Darius) 때 제2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였으며(스 5:13-17), 성전의 완성은 기원전 515년 다리우스 1세 6년에 완공되었다(스 6:15)다. 그러나 “성전의 완성이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의해 건축일을 끝내다”(스 6:14)에 나타난 이름은 ‘아닥사스다’이다. 아닥사스다(Artaxerxes)는 다리우스의 손자이기에 손자가 건설에 대한 조서를 내리고 그 조부 다리우스 때 완성되었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최소 50년 이상의 시간 차이를 거꾸로 돌려놓은 모순된 서술을 하고 있다.

성전 완공 연도

구분	성서	시기(기원전)	내용
다리우스 6년	스 6: 15	515	성전 완공
아닥사스다 왕 (אֲדַרְסָּדָא מֶלֶךְ)	스 6: 14	464	성전 공사 지시
	스 4: 7-10	464-457	성전 건설 방해
	스 7: 1	458	에스라의 예루살렘 방문
다리우스 2세 6년	스 6: 15	417	성전 완공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서에 4번 등장한다(스 4:7, 4:11, 7:7, 8:1).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하는 장면(느 2:1) 등 여러 번에 걸쳐 언급되는 것은 단순한 저자의 표기 오류라고 보기보다는 저자가 역사적 사건의 배경 인물로 의도적으로 등장시킨 것으로 이

해해야 한다. 내용상 에스라 4장 6-7절까지 유대인의 성전 건설에 대한 고발이 있기에, 페르시아 왕의 나열 순서가 ‘다리오(5절)-아하수에르(6절)-아닥사스다(7절)’로 나타난 것은 역사적 순서에 부합한다. 다리오는 다음의 순서로는 아하수에르(Xerxes, 재위 기원전 485-465년)이며 다음 왕은 아닥사스다로 연결되어(Artaxerxes, 재위 기원전 464-424) 역사에 나타난 왕의 순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스 4:7-10). 따라서, 이 서술 기준으로 보면 다리우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7대 왕 다리우스 2세(재위 기원전 423-405년)이며 그 재위 6년 기원전 417년 성전이 완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²⁴

그 근거는 페르시아 제국의 성전 건립 목적이 제국의 세금을 위한 것이며, 이 세금을 위한 성전 건설이 예루살렘에서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²⁵ 제국의 세금 수금 정책은, 이미 사마리아 성전을 통한 세금 징수 시스템으로써 예루살렘 지역까지 포함되었으며,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로부터 정치적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초기 제국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따로 분리하여 세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다왕에게 예루살렘이 독립적 성전 기능을 하게 되면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내지 않고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된다”고 한 이유이다.

24 참조, Diana Vikander Edelman, *The Origins of the 'Second' Temple: Persian Imperial Policy and the Rebuilding of Jerusalem* (London: Equinox, 2005), 7-8. 성전 건설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에델만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에델만은 Artaxerxes I(기원전 465-425년)의 통치시기에 성전이 건설된 것을 주장하면서, 학개와 스가라 1-8장의 연대기적 틀을 이데올로기적 첨가로 평가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과의 일치를 위해 추가된 것으로 이해한다.

25 Christopher Tuplin, "The Administration of the Achaemenid Empire," *Coinage and Monetary History*, eds., Ian Carradice (1987), 149-153.

(2) 아닥사스다-에스라-느헤미야

초기 제국은 혼란한 상태에서 속주 변두리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는 일이 시급한 사안은 아니었다. 성전의 건립 목적이 제국의 세금을 위한 것이지만, 페르시아 제국 초기는 쉽게 안정화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속주에서 강력한 제국의 시스템을 바로 작동시키지 못했다.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와의 1차 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0년)에서 패하고, 복수를 다짐한 그의 아들 아하수에르(크세르크세스)도 역시 2차 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80년)을 일으켰지만 패배했다. 이후 아하수에르의 아들 아닥사스다 시절에 아테네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내부 속주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속주 정책 강화는 바로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며 성전을 통한 제국의 직접적 세금 징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존 사마리아 중심의 속주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며,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로부터 통제 간섭을 벗어나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이었다.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보다 늦게 독립된 속주로서 위임 통치를 받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평원에 위치한 사마리아보다 경제적 생산성이 낮다. 반면, 사마리아 지역은 평야와 수자원을 어느 정도 풍족하게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기에 농업 생산력과 생산성이 예루살렘보다 경쟁력이 있었다. 그러나 페르시아 평화의 시절 속주 강화는 세금 징수 강화를 의미하여 예루살렘을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사마리아 속주에서 분리시키기로 결정하였다(스 6:14).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사마리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먼저 완공이 되었으며, 이 사마리아 성전 세력이 이후 예루살렘 성전의 공사에 방해를 했던 것이

다.²⁶

아닥사스다가 학자겸 제사장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파견하며 “레위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성전 제의를 돕고 재판관이 되어 가르치고 통치하라”(스 7:11-28)는 부분이다. 이 시기가 ‘아닥사스다’ 시절(스 7:1; 11; 12: 21, 8: 1)로 언급되는 점에서 에스라가 기원전 458년 귀환을 하였고 느헤미야가 동시대의 사람이라는 점(느 8:9)²⁷ 등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중요 등장인물은 ‘아닥사스다-에스라-느헤미야’이며 ‘아닥사스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제국의 목적은 아닥사스다 시절 페르시아-그리스 간에 ‘칼리아스 강화조약’(기원전 448년)으로 평화를 구축한 이후 내부의 통치 강화로 세금 징수를 강화한 것이며, 전쟁으로 과도하게 지출된 중앙정부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속주의 변방에까지 세금을 직접 징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도 사마리아로부터 독립적인 성전과 성벽이 완공됐으며, 성벽 건설 또한 군사적 목적이 아닌 제국의 세금 징수 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성전/성벽 완공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비교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성전과 성벽 완공의 이데올로기적 서술은 동일한 형식의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패턴은 ‘공사의 시작 → 방해세력 → 완공 → 제의와 개혁 조치’의 형식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나타난 이데올로기를 해체 분석하면, 저자인 사제집단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26 김영호, “포로기 사제집단의 이데올로기 형성과 종교권력 구축 과정 연구”, 126.

27 민경진,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 역사 재구성”, 『구약논단』 14 (2008), 116-117.

성전과 성벽 건설 서술 비교

〈완공 전〉

에스라(성전 건축 전후 과정)		느헤미야(성벽 건축 전후 과정)	
고레스 칙령	1:1-3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귀환 명령	아닥사스다 왕의 승인	2:5-9 느헤미야의 요청 승인
시도	3:8-13	성벽 중수	3:1-32
건축 방해 1	4:3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의 공조 거절(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4:4-6 그 땅 백성의 방해 4:8-10 고발(방해)자들 명단 4:11-16 고발내용 - 성읍과 성곽 완공되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아 왕에게 손해가 됨 4:23-24 공사중단	건축 방해 1	4:7-11 산발렛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의 방해
건축 방해 2	5:2 재시도 5:3 재시도에 대한 고발 -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닛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의 문의	건축 방해 2	6:1-14 산발렛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계شم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의 음모

〈완공과 그 이후〉

에스라(성전 건축 전후 과정)		느헤미야(성벽 건축 전후 과정)	
건축 명령	6:1-12 다리오의 조선: 성전 건축과 협조 명령 - 건축명령: 2-4 - 방해금지명령: 6-7; 13 - 협조명령: 8-11	공사 완료	6:15-19 공사 끝
건축 완공	6:14-15 다리오왕 제6년 건축 완공	지도자 세움	7:2 하나니와 하나냐

봉헌식	6:16-18 - 속죄제: 17 - 모세의 책 기록대로: 18	일곱째달 절기 준수	8:1-대규모 군중 동원 - 8:13 율법책 낭독
제의	6:19 - 유월절 지킴	제의!	8:13 절기 준수(초막절) 9-10장 율법책 낭독, 제사장과 레위인, 십일조
아닥사스다의 지원	7:11-26 제사장과 레위인과 함께 -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면제: 24 -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 경고: 26	성벽 봉헌식	12:27-43

(1) 성전/성벽 건축의 방해세력

성전 건설의 방해세력은 유다와 베냐민의 **궤**(짜르/대적자)로 언급되는데, 이 대적은 에스라 4장 1-4절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앗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3절)는 표현으로 봐서, 이들도 동일한 야훼 제의자임을 알 수 있다. 곧, 이들은 야훼를 섬기는 사마리아 성전 제의(祭儀) 관련이며, ‘유다와 베냐민’(1절)의 상대적 대척에 있는 12지파 중 나머지 10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 지파(왕상 12:20-24)를 의미한다. 포로 귀환 사제집단이 남유다의 후손 사제집단인 것과 달리, 대적자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 혹은 사마리아 사제집단이다. 그러나 이들이 비록 같은 민족이며 동일한 야훼 종교 신봉자들이지만 다른 성전을 가진 경쟁자의 관계이기에 **궤**(짜르/대적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만약 단순한 적이라면 이런 제안을 할 이유가 없다. 문장의 흐름은 사마리아인들이 실질적으로 성전 건설을 돕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스룹바벨과 예수아’(귀환 사제집단)는 거절을 했지만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단지 방해 때문에

다리오 시절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언급한다(4-5절). 같은 야훼주의자 사마리아인에게 귀환 사제집단이 이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대적자’, ‘성전 건설 방해’ 세력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의 영향을 받았고 ‘사마리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완공 이전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추정하도록 한다.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제국 속주에서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을 지속적으로 정치적, 종교적 간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실질적으로 사마리아 종교 제의자와 사마리아 성전에 예속된 것이기에 예루살렘 귀환 사제집단은 그들의 참여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²⁸ 아울러 거부 사유로 “앗수르 왕 에살핫돈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스 4:2)라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귀환 사제집단은 사마리아인은 이미 ‘종교적 혼합을 통한 혼혈인’(왕하:24-41)이기에 순수한 혈통이 아니며 예루살렘 성전 제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느헤미야 6장에 나오는 성벽의 방해세력은 ‘불특정 대적자’로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호발(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셀의 특정 이름을 거론한다. 여기서 산발랏은 사마리아 야훼주의자이며 제사장이다. 도비야는 암몬에 많은 재산을 가진 예루살렘 야훼주의자로, 이들이 군대의 지휘자급인 것을 알 수 있다(느 4:1-3).²⁹ 그러나 그들이 군대를 동원 방해했다는 언급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이 구체적 성벽 건설의 방해자로 볼

28 참조, 성전 건설을 둘러싼 사마리아와의 경쟁으로 인한 귀환 사제집단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취급한다. 김영호, “포로기 사제집단의 이데올로기 형성과 종교권력 구축 과정 연구”. 130-132.

29 Lester, L. Grabbe, *Judaism from Cyrus to Hadrian* (Minneapolis: Fortress, 1992), 192-198: 그라비는 암몬 땅에 토지를 소유한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이 성전 건설에 나타난 불특정 대적자의 방해 언급과 다르게 구체적 인물로 나열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을 수 있다. 이것은 ‘성전의 완공’ 서술 의미와 다르게 성벽 완공의 의미가 성전의 내부 기능적인 면이 완전하게 작동되지 못한 면을 환유적 방식을 통해 서술하기 때문이다. 에스라서의 성전 완공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페르시아 세금을 직접 징수하여 중앙정부에 직접 송금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이지만, 성전 제사장에게 어떤 구체적 이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벽의 방해는 성전 내부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그 원인은 예루살렘 성전 내부의 권력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 가문이며 제사장으로, 예루살렘 제사장 엘리아십과 혼인 관계(느 13:28)로 유대와 사마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사돈 관계를 맺은 사이였으며,³⁰ 성전의 내부 부패 세력인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큰 방 하나를 차지하고 제사장 엘리아십과 부정한 거래 관계가 있었다(느 13:4-9). 성벽 건설의 방해세력은 내부 인물이며 그 중심에는 엘리아십이 있었다.

엘리아십(느 3:1)이 사독계열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독계 제사장 여호사닥(대상6:15)의 증손자이며 귀환 사제 여호사닥의 아들 **יְהוֹשָׁפָאֵת**(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손자이다(학 1:1; 느 12:10).³¹ 엘리아십은 귀환 사제 사독계의 마지막 대제사장임에도 산발랏과 도비아가

30 이윤경, “느헤미야, 산발랏, 도비아의 관계를 통해서 본 느헤미야 개혁”,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 (2013), 7.

31 학개 1장 1절에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같이 언급이 되며 느헤미야 12장 1절 “스룹바벨과 예수야”이 같이 돌아온 것으로 여호사닥이 예수야는 동일 인물이다. 엘리아십이 중요한 대제사장임을 나타내는 것(느 12:22)과 엘리아십의 아들 요아김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했다(느 12:26), ‘예수야’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후기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참조,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Briggs,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MA: Hendrickson, 1994).

의 부정에 결탁되어 있었다. 이 척결은 어려웠지만(느 6:1-14) 결국 느헤미야가 해결(느 13:4-9)함으로써 사독계의 마지막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제거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의미는 사독계 제사장의 전통이 완전히 끊어짐과 동시에 레위 제사장의 새로운 권력 획득을 의미한다.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느 13:11),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느 13:29)라는 언급으로 토속 제사장인 레위 제사장이 성전권력의 최후 계승자임을 나타내고 있다(느 13:11, 29). 이 확증은 느헤미야서가 후대 레위계 제사장의 편집이기에 실질적 성전권력 획득이 성벽의 완공이라는 환유적 서술 방식을 통해, 자신들이 생각한 진정한 성전 시스템을 ‘성벽 완공’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완공에 대한 방해세력의 언급 차이는 에스라-느헤미야서가 성전권력의 최종 승자인 레위 제사장에 의한 편집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즉, 성전의 완공은 사마리아로부터 독립된 예루살렘의 정치적 위상(성전 건립)이었고, 이를 방해한 사마리아와 기타 성전의 외부 세력은 귀환 사제집단인 사독계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 세금 징수와 관련된 일이기에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벽의 완공은 느헤미야 파견을 통해 내부 성전 시스템을 방해하는 부패한 사독계 대제사장이 제거가 되고 자신들이 속주 통치 최종 위임자로 자체 성전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느헤미야 8-10장 편집은 레위 제사장의 이데올로기가 ‘성벽 완공-제의의 확대-성전세-레위 제사장의 몫’으로 나타나는 편집이다.

(2) 제의에 나타난 레위 제사장과 성전세

성전과 성벽의 완공 모습 이후 제의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누구인가? 이들은 포로 귀환 사제집단(사독계열 제사장)이 돌아오기 전부터 유대 지역 산당을 지키던 토착 제사장이었고, 사독계에 의해 성전의 중하 위직으로 등용되었으며(스 8:15-20), 성전의 최후 종교 권력자가 된 ‘레위 제사장’³²으로서 성전권력의 최후 승리자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성전의 완공 봉헌식은 그 주체가 돌아온 귀환 사제인 사독계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의를 했기에 그 표현이 מִנְּשֵׁר מִסֹּדֶר (셰페르 모세/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진행했다고 간단하게 서술하며 마무리한다(스6:18). 그러나 성벽 완공 서술은 성전권력을 최종적으로 획득한 레위 제사장의 시각에서 그들의 성전에서의 위상을 나타내고,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 성전이 제국의 세금 징수와 더불어 자체 성전을 위한 성전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기 하기 위해 더욱 자세하게 갖오하여 서술한 것이다. 성벽의 완공은 모든 성읍의 백성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성벽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에스라를 통해 진정한 성전국가를 선포하는 표현으로 성벽 앞에서 מִנְּשֵׁר מִסֹּדֶר (셰페르 토라/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어 온 백성이 기뻐서 회개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느 8:1-10:29).

제의에 대한 차이도 있다. 성전 완공 이후 ‘모세의 책’에 따라 ‘유월절 제의’를 지내지만 ‘성벽의 완공’에서는 ‘초막절 제의’를 추가하여 언급한다. 이것은 ‘모세와 출애굽을 소환하는 기념’의 의미가 아닌 성전세의 확대된 모습을 알리는 서막(序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귀환 초기 사제집단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의 서술은 자신들

32 우택주, “레위인의 사회적 기원과 제사장 역할의 재평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8(2008), 35-57

의 귀환이 모세와 출애굽의 의미를 소환하여 되살린다는 되쏘기 작업(retrojected method)으로 데자뷔(dejavu) 서술을 하고 있다. “사로잡혀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에서 야훼께서 구원을 손길을 내민 것을 기념하고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유월절 양을 잡으니”(스 6:19-22)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유월절'을 정의하고 성전이 완공되면서 “사무엘 이후 역대 왕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왕하 23:22; 대하 35:18)고 언급하면서 유월절 제의를 시작한 것이다. 포로기 이후, 포로 사제의 귀환 시점까지 유월절 절기가 없었으며 성전의 완공 시점에 이르러 ‘유월절’을 다시 만들었다. 바빌론 포로지에서의 귀환한 사제집단은 야훼로부터 선택받은 정통성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모세의 출애굽 데자뷔로 투사(透寫)’하여 성전 완공과 더불어 유월절 기념 제의로 출애굽 시킨 야훼에 감사드리는 목적과 일치시킨 유월절 성전세로 나타낸다.

그러나 성벽 완공 제의에서는 성전의 완공 이후 레위 제사장이 성전권력으로 안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과 별도로 자신들을 위한 성전세로 유월절 기념을 확장하여 초막절 절기를 서술한다. 이 점은 성전의 성전세 징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느헤미야 8장 13-18절은 초막절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의 초막에 거주한 것을 기억”(레 23:43)의 언급과 그 연장선상에서 성전세 세금(1/3 세겔), 레위와 레위제사장의 몫을 언급하고(국가 공무원 월급), 십일조(성전세, 국가 세금)까지 추가 언급함으로써 성전국가 유지를 위한 성전세 체계를 갖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초막절’ 언급은 단순 모세 기념세(유월절, 무교절, 초막절)를 넘어 확장된 성전세(계절 토지세)인 맥추절, 수장절의 연결고리이며 최종적으로는 원천 소득세인 십일조를 확장되는 모습을 서술한다. 이것은 페르시아 세금이 아닌 자

체적 성전세의 시작이며 성전국가 유지의 원천이었다.³³

(3) 성벽 완공에 나타난 ‘율법’ 낭독 - 성전 국가 ‘헌법’의 낭독

성전의 완공 이후 언급된 ‘모세의 책’이 성벽의 완공에서는 ‘모세의 율법책’인 תּוֹרָה(토라/율법책)로 언급되고 있다. 기존의 성서연구는 이 ‘율법’ 낭독의 의미를 간과하는 것 같다. 알트(A. Alt)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 때인 기원전 5세기 중반 페르시아 제국 시절 부족한 고고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예루살렘 지역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상변화가 있었으며, 성벽의 건축(느 6:15-7:4)은 느헤미야 11장의 증언과 결합하여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예루살렘이 미스바를 대신하여 지역의 수도가 되었다고만 주장한 것이다.³⁴ 조셉 블렌킨소프(Joseph Blenkinsopp)도 포로기 이후부터 제2성전 건축 완성의 시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활동 시기이며 느헤미야 7장 13절부터 8장 18절까지를 연속성 속에 놓인 일련의 사건으로 설명하면서 귀환자들이 다섯 번째 달에 도착했고(스 7:8-9), 율법 공개낭독이 일곱 번째 달에 이루어졌으며(느 7:13), 결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 소집이 아홉 번째 달에 있었고(스 10:9), 이후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했던 요청(스 7:25)이 율법의 낭독으로 실행되었으며, 결혼 위기 이야기가 아닥사스다 조서의 명령에 따라 실천하고 있다는 것(스 7:26, 10:8) 등 귀환 초기의 그들의 행동이 율법에 의거 아주 속도감 있게 전개된 것에만 주목했다.³⁵

프라이(Peter Frei)는 ‘율법의 낭독’ 의미를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페

33 김영호, 윗글, 148-157.

34 A. Alt, "Judas nachbarn zur zeit Nehemias," *Palästina Jahrbuch* 27 (1931), 66-74.

35 조셉 블렌킨소프/소형근 옮김, 『유대교의 기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98-99.

르시아 통치 아래 법(토라 혹은 토라와 유사한 형태)의 공포와 관련하여 페르시아 다리우스 아래서의 이집트 법의 성문화, 페르시아의 소아시아 지역 종교 설립에 대한 개입 그리고 페르시아의 성서 자료 승인을 그 근거로 제시하면서 ‘제국승인’ 이론을 제기하고 에스라가 아닥사스왕의 조서에 따라 공포한 유다의 법(에스라 7장)은 오경의 축소형태 또는 확대된 형태였으며, 그것은 분명히 페르시아의 승인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³⁶ 이 성벽의 완공에 있어 ‘율법 낭독’의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성벽 완공 후’ 모든 백성 앞에서의 에스라의 ‘율법책’ 낭독은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 율법책은 야훼의 말씀으로 정통성을 나타내지만 이 율법책이 처음부터 그들의 손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언급(느 8:1)은 율법책이 어디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포로지에서 ‘관리되어 보관’되었음을 나타내고 포로지에서 “애굽 땅에서 맺은 것과 다른 새로운 언약”(렘 31:31-34)으로 있었던 율법책이다. 요시야 전에 사라진 율법책은 요시야 때 발견되어 개혁을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지만 그 율법책은 포로지로 이동되어 귀환 사제집단이 ‘새로운 언약’으로 가지고 왔으며 그 율법책을 에스라가 성벽 완공과 함께 성벽 앞에서 낭독한 것이다.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책은 요시야 때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왕하 22:4-8) 발견된 바로 그 율법책이다. 이 나레이팅의 핵심은 율법의 권위를 강조하여 나타내는 것이며, 이 낭독을 통해 마침내 진정한 성전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헌법 선포의 의미였다. 이 ‘율법의 낭독’은 실패한 ‘요

36 1994년에 발표한 책 ‘Empire and the Meaning of Religion in Northeast Asia: Manchuria 1900-1945’와 2005년에 ‘Empires and Boundaries: Rethinking Race, Class, and Gender in Colonial Settings’에서 이론을 발전시켜, 다양한 지역의 제국주의와 강제적 통합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시야 개혁'을 다시 살리는 것이기도 했다. 이것은 다윗왕조가 아닌 새로운 성전(국가)과 함께 갖추어진 율법(헌법)으로 신정국가 탄생을 알리는 것이다. 포로지에서 가져온 이 율법책은 귀환 사제의 정통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인 동시에 통치의 근거였다. 성전의 진정한 완성은 신정국가의 구현이며 그것을 위한 두 가지의 핵심 축은 '성전(신정국가)와 율법(헌법)'이었던 것이다.

율법책 연관성

열왕기하 22장	느헤미야 8장	상징
성전 보수 중	성벽 완성 (성벽 보수 완성)	다윗 성전을 대신하는 신정 국가 성전
율법책의 발견	율법책 낭독	헌법 발표
개혁 실패 → 왕조 멸망	성전국가 실현	진정한 개혁 시작

4. 결론: 새로운 신정국가의 탄생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벽의 건설 이후 백성과 함께 서약하고 기념하는 것에 대한 서술(느 10:34)은 성전의 완공 이후 성전권력을 가진 것이 바로 '레위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이데올로기적 표현이다. 이 성벽의 의미는 레위 제사장 권력이 최종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드러내며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 야훼가 머무는 신성한 공간이며, 그렇기에 **שַׁאֲרָיִם**(샤아르/성문)은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없는 타부(他部)의 공간이다. 느헤미야 8장 1절은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한다고 보도하고, 그 본문에서 나타난 수문 **שַׁאֲרָיִם**(샤아르 하마임/물의 문

[Water gate])은 아마도 동양적 사유에서 이세와 내세를 가르는 금천(禁川)과 같은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진정한 성벽 완성에 대한 함의는 예루살렘 성전이 사마리아로부터 정치적 독립이 되어 페르시아 제국의 직할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의 제국 세금 징수 창구 기능과 더불어 속주의 위임자인 레위 제사장 권력 집단이 자체적 세금 징수가 가능하게 하는 성전국가 시스템 작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성벽의 완공 선언’과 함께 느헤미야 8-10장에 나타난 제의의 서술은 자체적 성전세 징수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것은 성전 권력이 비로소 안정화되었고 포로지 사제 귀환을 통한 토착민과의 관계도 정상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성전 건립 전 지켜지지 않던 유월절 제의를 시작으로 성벽 완성 이후 초막절(느 8:13)로 확대하고, 성전권력의 최후 승자인 레위제사장이 성전 관리, 십일조, 안식일 준수의 주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느 10:34-39).

느헤미야에 나타난 성벽의 건설 서술은 속주에서 ‘유일신 야훼-성전의 건립-율법의 회복-성전세’를 통한 위임 신정국가임을 서술하기에 에스라의 성전 완공 서술보다 느헤미야의 성벽 완공의 서술이 길었던 이유이다. 성전의 완공이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 정책 결정에 의해 완성되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속주 내 성전국가로 발전시켰다는 서술로서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성벽의 완공’이다.

참고문헌

- 김선중. “에스라-느헤미야 연구 서설.” 『구약논단』 73 (2019), 49-73.
 캐슬러, 라이너/민경구 옮김. 『고대이스라엘 사회사』. 서울: CLC, 2022.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한 권인가, 두 권인가?” 『장신논단』 19 (2003), 447-461.
 _____. “최근 에스라-느헤미야 연구 동향.” 『성서마당』 11 (2006), 54-67.

- _____.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역사 재구성: 기원전 458년에서 430년까지 에스라-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구약 논단』 27 (2008), 113-137.
- 밀러, J. 맥스웰., 헤이스, 존 H./박문재 옮김. 『고대 이스라엘 역사』.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배희숙.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집’ 재건: 느헤미야서 통째로 읽기.” 『선교와 신학』 47 (2019), 217-245.
- 브라이트, 존/박문재 옮김. 『이스라엘 역사』.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3.
- 블렌킨소프, 조셉/소형근 옮김. 『유대교의 기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소형근. “에스라-느헤미야서연구의 난제들과 그 해법들.” 『구약논단』 74 (2019), 342-364.
- 우상혁.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성벽 신학.” 『개혁논총』 40 (2016), 33-62.
- 이윤경. “느헤미야, 산발랏, 도비아의 관계를 통해서 본 느헤미야 개혁.”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 (2013), 7.
- 뢰머, 토마스/김경식 옮김. 『신명기 역사서 연구』. 서울: CLC, 2020.
- Ackroyd, Peter R. “Chronicles- Ezra-Nehemiah: The Concept of Unity.”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0 (1988), 189-201. Fried, L. S. “Something there is that doesn't love a wall around Jerusalem - Why would a simple city wall create such a crisis?” *Transeuphratène* 39, (2010) 79-89.
- Alt, A. “Judas nachbarn zur zeit Nehemias.” *Palästina Jahrbuch* 27(1931), 66-74.
- Becker, J. *Ezra, Nehemiah*. Würzburg: Echter Verlag, 1990.
- Blenkinsopp, Joseph. *Ezra-Nehemiah*. London: SCM Press, 1988.
- Braun, Roddy L. “A Reconsideration of the Chronicler's Attitude toward the Nort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6 (1977), 59-62.
- Clines, David J.A. *Ezra, Nehemiah, Esther*. London: Morgan & Scott, 1984.
- Dumbrell, W. J. “Purpose of the Books of Chronicle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7 (1985), 257-266.
- Edelman, Diana Vikander. *The Origins of the 'Second' Temple : Persian Imperial Policy and the Rebuilding of Jerusalem*. Sheffield: Equinox, 2005.
- Gelston, Anthony. “The End of Chronicles.”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10 (1996), 53-60.
- Grabbe, Lester L. “Looking for Models for Nehemiah's Polity.” *New Perspectives on Ezra-Nehemiah* Kalimi, I. eds.,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 _____. *Ezra-Nehemiah*. London: Routledge, 1998.

- _____. *Judaism from Cyrus to Hadrian*. Minneapolis, MN: Fortress, 1992.
- Gunneweg, Antonio. "Zur Interpretation der Bücher Esra-Nehemia." *Congress Volume* Emerton, J.A. eds., (Leiden: Brill, 1981), 146-161.
- Johnstone, William. "Guilt and Atonement: the Theme of 1 and 2 Chronicles." *A Word in Season. Essays in Honour of William McKane*, Martin, J.D. and Davies, P.R. eds., (Sheffield: JSOT Press, 1986), 113-140.
- Mason, R. *Preaching the Tradition: Homily and Hermeneutics after the Exi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McKenzie, Steven I. *The Chronicler's Us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Atlanta: Scholars Press, 1985.
- Newsome, James D.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the Chronicler and His Purpos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4 (1975), 201-17.
- Oeming, M. *Das wahre Israel: Die genealogische 'vorhalle' 1 Chronik 1-9*. Stuttgart: Kohl-hammer, 1990.
- _____. "The Real History: The Theological Ideas behind Nehemiah's Wall." *New Perspectives on Ezra-Nehemiah*, Kalimi, I. eds.,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12), 131-149.
- Olmstead, A. T.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 Pritchard, James B., eds., *The Ancient Near East: an anthology of texts and pictur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 Tuplin, Christopher. "The administration of the Achaemenid Empire." *Coinage and administration in the Athenian and Persian empires* 343 (1987), 109-166.

검색어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과 성벽의 완공, 이데올로기 해체 비평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pletion of the Temple and the Wall’ in the Book of Ezra and Nehemiah

Young-Ho Kim

Institute of Theological Studies in Hanshin

This article reevaluates the meaning of ‘the completion of the Second Temple and the Wall’ in Ezra-Nehemiah through the lens of ‘Ideology deconstruction criticism.’ This study argues that the meaning of ‘the completion of the wall’ is not a wall for military purposes. The ‘completion of the wall’ in the book of Nehemiah is literary in nature, and as such, seen in the emphasis on ‘the law,’ ‘the Feast of Tabernacles,’ ‘the temple tax,’ and ‘the Levitical priests,’ the editorial work represents an emphatic expression of the priest’s ideology.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edited passages containing priestly ideology found in the book of Ezra-Nehemiah. The narrative of the Levitical priests and Levites and commemorating with the people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Neh 10:34) serves as an ideological expression indicating that it was the Levitical priests who held the authority over the temple after its completion. This implies that, even though the physical temple had been constructed and politically separated from the Samaritan temple and incorporated into the direct administration of the Persian Empire, the ultimate goal of the Levitical priests was not merely that. The function of the Jerusalem Temple

www.kci.go.kr

included, alongside its role as a tax collection center for the imperial taxes of the time, the ability to operate as a delegate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enabling independent tax collection within the temple state system.

Therefore, the declaration of ‘the completion of the wall’ in conjunction with the rituals indicated in Nehemiah chapters 8-10 served to proclaim the ability to collect temple taxes independently. Additionally, it signifies the stabilization of temple autho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relationship with local indigenous powers. This was demonstrated through the previously unobserved offering of the Passover before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to the Feast of Tabernacles (Neh 8:13) after the completion of the wall, and the Levitical priests, as the ultimate victors of temple authority, displayed their independence in temple management, tithing, and observance of the Sabbath (Neh 10:34-39). This is why the narrative of Nehemiah’s completion of the wall was longer than the narrative of Ezra’s completion of the temple because it described the province as a mandated theocracy through ‘the sole God, YHWH –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 restoration of the law – temple tax’ within provincial context. While the completion of the temple was mandated by Persian imperial policies, the narrative in Nehemiah presents ‘the completion of the wall’ as a development into their own temple state within their province.

key words

Ezra, Nehemiah, Completion of the temple and walls,
Ideology deconstruction criticism

투고일 : 2023년 01월 05일

심사일 : 2024년 01월 18일

게재 확정일 : 2024년 02월 03일

www.kci.go.kr